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영숙, 한진숙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Behaviors in School-Aged Children

Young-Sook Moon, Jin-Sook Han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연구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였으며 D시에 있는 초등학교 3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의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중재가 필요하다.

주제어 : 학령기, 아동,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behavior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12 selected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Data were gathered from May 12 to 23,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As a result, social support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their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positive stress-coping behaviors. As for influential predictors for positive stress-coping behaviors,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ly influential. The findings of the study ascertained that the children's positive stress-coping behaviors were under the heavy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aim at boosting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to affect the reduction of children's stress is required, and related intervention is also necessary.

Key Words : School-aged, Childre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ess-coping behaviors.

Received 22 September 2016, Revised 1 Novem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Jin-Sook Han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Email: jshan@kony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성장 발달을 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이며, 많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므로, 스트레스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1].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탐색한 관련 연구들은 종래는 대부분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근래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학업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들마저 매일 스트레스에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후기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심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스트레스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2,3].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경우,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해소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개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대처행동에 의해 완충되어 진다고 보고[4,5]되고 있다. 이는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또는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하는 과정에 의해 발생한 개인차로서 적절한 대처행동이 긍정적인 적응을 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6].

사회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 받는 대상이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지로 개인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일상 스트레스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적절한 대처 행동을 조장하기도 함으로써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6].

사회적 지지가 타인이 개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자원

이라면, 개인이 스스로에게 주는 긍정적 자원은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Bandura[7]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보았으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한 특정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당면한 문제와 특정하게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대처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를 확인하고,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2.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있는 1개 초등학교 5,6학년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신과적인 문제나 만성질환이 없는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유의수준 5%, 검정력 90%로 하여 270명으로 산출되었다.(G-Power 프로그램)

이러한 표본크기를 근거로 하여 전체대상자 320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이 중 부적당한 자료를 제외한 312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지지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Han[8]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세 개 하위요인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척도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Han[9]이 사용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하위요인, 즉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를 포함하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도구는 Likert식 척도로 4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3.3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Min과 Yoo[1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처행동은 5개의 하위요인 적극적 대처행동 7문항, 소극적 대처행동 8문항, 공격적 대처행동 10문항, 회피적 대처행동 11문항, 사회적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4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적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긍정적인 대처행동, 소극적/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을 부정적인 대처행동으로 보았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긍정적 대처행동 신뢰도 Cronbach's $\alpha=.87$, 부정적 대처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5$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4년 5월 12일에서 5월 23일까지 D시에 있는 1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출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장, 담임 교사의 동의와 협조를 얻었으며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 비밀 보장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312명으로 남자, 여자가 각각 156명(50%)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	
Sex	Male	156	50	
	Female	156	50	
Birth order	1	109	34.9	
	2	140	44.9	
	above 3	25	8.0	
	alone	38	12.2	
Education	Father	Below meddle school	10	3.2
		High school	74	23.7
		University	169	54.2
	Mother	Graduate school	59	18.9
		Below meddle school	6	1.9
		High school	78	25.0
		University	185	59.3
	Occupation	Father	Graduate school	43
Agriculture			3	1.1
Public servant			122	39.1
Father		Service industry	79	25.3
		Technical post	85	27.2
		Professional	18	5.7
Standard of living	Unemployed	5	1.6	
	Good	112	35.9	
	Average	195	62.5	
	Poor	5	1.6	

출생순위는 둘째가 140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 이상이 25명(8.0%)으로 가장 적었다.

학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누어 보았으며 아버지 학력에서는 대학 졸업이 169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이하가 10명(3.2%)로 가장 적었다.

어머니 학력에서도 대학 졸업이 185명(59.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이하가 6명(1.9%)로 가장 적었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공무원이 122명(39.1%)로 가장 많았고 기능직 85명(27.2%), 서비스업 79명(25.3%)이 대부분이었다.

생활수준은 좋음이 112명(35.9%), 보통이 195명(62.5%), 어려움이 5명(1.6%)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

아동이 지각한 총 사회적지지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82를 나타내었다. 사회적지지의 하위 척도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았으며, 이 중 가족지지(평균:4.16)가 가장 많은 정도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 정도는 4점 만점중 평균 2.83을 나타내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5점 만점 중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적극적, 사회적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평균 2.04점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소극적, 공격적, 회피적 대처행동)은 평균 1.81점을 나타내었다 <Table 2>.

<Table 2> Degree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coping behavior (N=312)

Variables	M ± SD	Range	Min	Max
Social support	3.82±0.74	1~5	1.2	5.0
Family support	4.16±0.95	1~5	1.0	5.0
Friend support	3.61±0.91	1~5	1.0	5.0
Teacher support	3.67±0.82	1~5	1.6	5.0
Self-efficacy	2.83±0.43	1~4	1.6	4.0
Stress-coping behavior				
Positive	2.04±0.74	1~5	1.0	5.0
Negative	1.81±0.51	1~5	1.0	3.5

〈Table 3〉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coping behavior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12)

Characteristic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ess-coping behavior(positive)	
	M(SD)	t/F(p)	M(SD)	t/F(p)	M(SD)	t/F(p)
Sex						
Male	3.65(0.78)	-3.95(<.001)	2.85(0.43)	0.46(0.644)	2.03(0.76)	-0.33(0.739)
Female	3.98(0.66)		2.82(0.43)		2.06(0.72)	
Birth order						
1	3.76(0.74)	0.30(0.823)	2.79(0.41)	1.35(0.258)	2.02(0.76)	0.23(0.876)
2	3.85(0.78)		2.89(0.45)		2.05(0.77)	
above 3	3.85(0.63)		2.79(0.32)		2.16(0.76)	
alone	3.82(0.66)		2.80(0.43)		2.01(0.57)	
Education						
Father						
Below middle school	3.92(0.95)	0.72(0.542)	2.89(0.58)	0.11(0.956)	2.27(1.18)	0.95(0.418)
High school	3.74(0.72)		2.84(0.44)		2.01(0.61)	
University	3.86(0.78)		2.85(0.44)		2.01(0.74)	
Graduate school	3.93(0.64)		2.88(0.32)		2.18(0.86)	
Mother						
Below middle school	3.24(0.51)	1.36(0.255)	2.69(0.37)	0.33(0.802)	1.88(0.18)	0.66(0.580)
High school	3.90(0.74)		2.86(0.43)		2.06(0.73)	
University	3.88(0.75)		2.86(0.43)		2.03(0.75)	
Graduate school	3.80(0.67)		2.89(0.34)		2.21(0.84)	
Occupation						
Father						
Agriculture	2.67(1.28)	2.68(<0.022)	2.59(0.30)	0.30(0.912)	1.76(0.66)	0.67(0.648)
Public servant	3.91(0.74)		2.85(0.45)		2.07(0.75)	
Service industry	3.89(0.59)		2.83(0.39)		2.03(0.71)	
Technical post	3.81(0.77)		2.85(0.43)		2.11(0.78)	
Professional	3.74(0.68)		2.90(0.20)		1.96(0.80)	
Unemployed	3.17(0.88)		2.79(0.52)		1.52(0.18)	
Standard of living						
Good	4.04(0.79)	9.27(<.001)	2.97(0.42)	9.33(<.001)	2.14(0.87)	1.70(0.191)
Average	3.70(0.66)		2.76(0.41)		2.02(0.66)	
Poor	3.13(1.08)		2.58(0.52)		1.78(0.4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정도의 차이는 성별 (t=-3.95, p<.001), 아버지 직업 (F=2.68, p=.022), 생활

수준(F=9.2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생활 수준 (F=9.3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활수준 높음(평균:2.97), 중간(평균:2.76), 낮음(평균:2.58)의 순으로 자기 효능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의 차이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The Subj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coping behavior (N=312)

Variabl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ess-coping behavior(positive)
	r(p)		
Social support	1		
Self-efficacy	.546(<.001)	1	
Stress-coping behavior (positive)	.334(<.001)	.283(<.001)	1

(Table 5)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behavior (positiv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Stress-coping behavior(positive)	Social support	.251	3.826***	.124	20.559***
	Self-efficacy	.146	2.220*		

*p<.05, **p<.01, ***p<.001

3.4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행동 간의 상관관계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r=.546, p<.001$),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r=.33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도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r=.28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3.5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회적지지($\beta=.251, p<.001$), 자기효능감 ($\beta=.146, p<.05$)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두 변인에 의한 전체 설명력은 12.4%였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 보고,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82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Jung[11], Jeon과 Kim[12], Kim[13]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점수가 3.0점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와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

라서 학교에서는 교사 및 간호종재자는 아동들이 친구들과 좋은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사가 학생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음을 지각할 수 있게 하여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건강하게 생활해 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이 평균 이상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음은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정도는 4점 만점 중 평균 2.83점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Jung[11], Kim[13]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점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Bandura[14]는 자기효능감을 아동이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았으며, 개인 내적인 특성들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심리적 자원에 해당된다고 하였다[15].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16,17]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과 과정이나 재량 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5점 만점 중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적극적, 사회적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평균 2.04점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소극적, 공격적, 회피적 대처행동)은 평균 1.81점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평균이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Kim[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 대처행동이나 사회적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처럼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 대처를 하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적응상에

문제가 없지만 부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혼란이 생겨 문제행동을 유발하며 Park[18]은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감정을 통제하거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고립된 활동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회피, 과잉 통제함으로써 내면화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발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확인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의 차이는 사회적지지에서 성별, 아버지 직업,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남녀 차이는 같은 학령기 아동이라 하더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환경에 대한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공무원, 자영업, 기술직의 순으로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했으며, 이는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직업을 가진 가정에서의 아동들이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수준에서는 생활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아동들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Jeon[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생활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아동들이 자기효능감을 많이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Jeon[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생활수준은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는 모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거의 모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Hwang[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r=.546, p<.001$),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r=.33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Jeong[20], Kim[21], Kim[13], Jeon[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사회적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높아진 아동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변의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22,23].

어려서부터 부모나 교사로부터 기대감과 자신감 등 사회적지지를 받고 자란 아동은 스트레스를 회피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고 그래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 준다고 볼 수 있다[13].

또한 개인 내적인 특성들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실제적인 사회적지지를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다[24].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25]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적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Park[26]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즉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며,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1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13], You[2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아동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증진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므로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 교육 및 학교 프로그램의 개발과 증진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312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82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83점을 나타내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5점 만점 중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평균 2.04점음,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평균 1.81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에서는 성별, 아버지 직업, 생활수준에서, 자기효능감에서는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r=.546, p<.001$),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r=.33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전체 설명력은 12.4%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I. S. Kim,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America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Factors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ie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20, No.1, pp. 139-152, 2009.

- [2] Y. A. Jang, Y. J. Lee, "The relationships of Stress Degree, Coping Behavior & Self-Esteem among Late-Elementary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8, No.3, pp. 543-569, 2004.
- [3] Y. L. Hong, "Stressor, Coping Style, Communication with Mother & School Adaptation in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6, No.3, pp. 362-371, 2000.
- [4] Band, E. B., & Weisz, J. R.,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bod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4, pp. 247-253, 1998.
- [5] Dubow, E. F., & Tisak, J.,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Vol.60, pp. 1412-1423, 1989.
- [6] G. H. Joo,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korean children'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partial least square path model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2, pp.49-60, 2013.
- [7]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1997.
- [8] M. H. Han,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6.
- [9] H. J. Han, "The Effects of self assertiveness training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2.
- [10] H. Y. Min, A. J. Yoo, "Development of a Daliy Hassles Scale for School Age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9, No.2, pp. 77-96, 1998.
- [11] H. S. Jung, "Perfectionism and self-confidence as factors for depression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 [12] M. S. Jeon, H. O.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2, No. 3, pp. 272-280, 2011.
- [13] S. J. Kim,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ress-coping behavior among children", Kungin University, 2008.
- [14]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15] O. Choe, W. S. Le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9, pp. 455-463, 2014.
- [16] S. I. Yeon, H. S. Ahn, & S. W. Oh, "The influence of the attachment of parents and the stress of school life middle-school students to the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7, pp. 221-227, 2012.
- [17] Y. H. Chang, J. H. Han, J. S.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elf-encouragement,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0, pp. 515-523, 2014.
- [18] J. A. Park, "Relationship between coping with stress in school-aged children and their behavior problems", Yon Sei University, 2001.
- [19] Y. S. Hwang, "A study on the factors of children's daily hasslers and relationship with their coping behaviors",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7.
- [20] Y. S. Jeong, "The influence of self-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0.
- [21] K. A. Kim,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ression, social support, self efficacy, school adap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5.
- [22] Y. S. Go,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centering the stress of household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2006.
- [23] Y. J. Kim, C. S. Lee,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6, pp. 539-547, 2014.
- [24] S. N. Seo, S. G. Lee, & S. H. Yim,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 327-333, 2012.
- [25] J. W. We, K. P. Cho,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social support, stress-cop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research*, Vol.14, No.8, pp. 237-264, 2014.
- [26] K. N. Park, "Differences and effect of after school class experience on elementary students' sociality and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5, pp. 45-56, 2014.
- [27] H. Y. You,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perceived social support, children's ego-resilience and their stress coping behaviors", Hannam University, 2010.

문 영 숙(Moon, Young Sook)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부모-자녀관계
- E-Mail : moon@konyang.ac.kr

한 진 숙(Han, Jin Sook)



- 2001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8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음주, 건강증진, 여성건강, 갱년기 여성
- E-Mail : jshan@konyang.ac.kr